

## 신앙칼럼

### 성화를 향한 순례의 인생!

우리가 살면서 성취해야할 최우선의 과제는 주님이 성스러우셨던 것 같이 우리도 성스러워지는 것이다. 이 순례의 길을 쉽지 않은 않고 때로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큰 인내를 가져야 어렵게나마 끝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아니 때로는 인간의 최후까지 미완성으로 남아있게 될 수도 있고 제자리걸음하거나 때론 일시 퇴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나 앞을 향해 꾸준히 진전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중간포기만은 하는 일은 없게 하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수는 바로 사랑이고 이 사랑의 가르침은 어느 종교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제일 먼저 실천하고 완성시켜야 할 주님이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까지 자신이 먼저 실천하셨고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실천하라 유언하신 가장 성스러운 계명이다. 이 사랑의 실천이 바로 우리성화의 방법이고 길이라는 말이다!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우리의 원수나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 명하시고,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 말씀하신다.

마태 5:43-45 원수를 사랑하여라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여기에 동양인의 성화의 한 방법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남과의 화합을 이루면서 우리의 성화를 달성할 수가 있는지 배워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런 화합을 통해 어떻게 이웃과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지 알아보자!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임으로 내가 높아지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내가 낮아진다면 나의 평화와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으나 남에게 지고는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들곤한다. 사실은 남에게 지는 것이 남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어 보자! 틀림없이 남과의 화합은 물론 나에게 평화와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아가 남보다 더 숨어서 봉사하고 공동체에 이반이 하는 멤버가 되는 것이다. 나 자신의 성화를 통해 나의 주변 사람들, 내가 속한 그룹이나 공동체, 나아가 이나라와 온세상을 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타고난 성스러운 사명인 것이다.

### 和為貴 佛光星雲(1927 - )

真正高貴的人, 質地柔軟, 如水曲折婉約, 不擇大小細流, 匯成百川汪洋。  
 你對我錯, 融化剛強的雪原  
 你大我小, 粉碎傲慢的高山;  
 你有我無, 解開愛結的纏縛;  
 你樂我苦, 學習菩薩的慈悲。

화합이 귀중한 것이다.

진정으로 고귀한 사람은, 정직하고 유화한 사람으로, 완만하게 굽어져 흐르는 물과 같아, 개울이 크고 작음에 개의치 않고 흘러 큰 대양을 이루는 것과 같다.

네가 나에게 잘못하더라도, 융합하여 더 강해져 설원을 만들고; 너는 커지고 나는 작아져, 높은 산같은 오만함을 갈아버리고, 너는 갑이고 나는 을이라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속박을 해결하며, 너는 즐거워하고 나는 슬퍼하면서 보살의 자비를 배워가는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위에 인용한 성경의 구절과 불교의 한 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어렵지만 함께 끝까지 한발자욱 한발자욱 걸어가 우리의 성화를 이룹시다! 우리 여정의 정상에서 만나요! 그리고는 이사야 6장 3 절에서와 같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하느님! 그의 영광이 온누리에 가득하네" 하고 부르짖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 6:3  
 그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야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וְקָרָא זֶה אֶל-זֶה וְאָמַר קְדוֹשׁ | קְדוֹשׁ קְדוֹשׁ! הֲוֵה צְבָאוֹת מְלֶא

### כל־הָאָרֶץ כְּבוֹדוֹ

그렇습니다! 온누리에 하느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까지 함께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인 그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가 아니던가요?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5,5ㄴ-14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 주신 그분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군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글/유병기 베네딕도

**부활**  
**제 5 주일**  
 —————  
**2024년**  
**04월 28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묵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화-금요일  
 (10:30AM~3:3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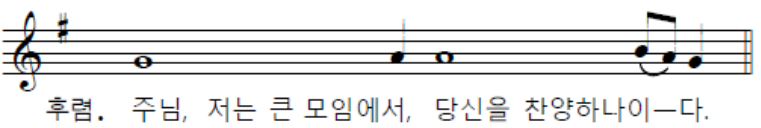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성 다미아노 십자가의 기적 (1300)〉

###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사도행전 9,26-31
- # 화답송 시편 22(21),26-27,28.과 30.30(© 26참조)



- # 제 2독서 요한 1서 3,18-24
- # 복음 환호송 요한 15,4,5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 복음 요한복음 15,1-8
- # 성가 입당 35 봉헌 213, 513 성체 162, 180 파견 131



**미사지향 (연미사)**

- 선전환(마리아) - 가족
- 감명자(헬레나)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온형렬 - 박화성(헬레나)
- 이석중(스테파노) - 이용문(안드레아)

**미사지향 (생미사)**

- 이용범(사도요한) 신부님 - 이광호(다니엘)
- 윤석로(이나시오) 부제님 - 이광호(다니엘)
- 오현주(요한) 예비 부제님 - 박안나
- 오욱자(데레사) - 박안나
- 채희백(바오로) 채미영(데레사) - 오요한, 이광호(다니엘)
- 오애희(유리안나) - 가족, 박안나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윤 날리 - 가족, 이정옥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김순옥(울리아)
- 하건철(안토니오) - 가족
- 한상철(빈첸시오) 가정 - 오요한
- 썸머셋 구역원 - 오요한
- 부활포장마차 애써주신 모든 분들 - 사목회
- 문마일리(젼마) - 정 데레사
- 최정원(레지나) - 성모회
- 토레스(글라라) - 김영필(안토니오) 가족
- 고병준 안가연 견진을 축하하며 - 자모회
- 이보현(요안나) - 이광호(다니엘)
- 변 엘리사벳 - 오 데레사
- 조용신(스테파노) - 오경숙(세실리아)
- 이 이사벨라 - 변모 공동체
- 김삼식(베드로) - 가족, 성낙순(미카엘라), 김순옥(울리아)
- 한지혜(크리스티나) - 성모회, 오세실리아, 김영필, 이정옥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4/21 주일 헌금 (117명).....\$916
  - 감사헌금 (익명).....\$300
  - 교무금 합계.....\$1,330
- 한상철(4)    전광수(3~4)    오용운(3~5)    백상현(4)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애희(울리아나)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울리안나    김삼식(베드로)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씌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3.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4. 바닥 청소 깨끗이 해 주세요
5.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 단속 확인 바랍니다.

**원할한 주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주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4월부터 사무실 근무 시간이 화- 금, 오전 10:30 ~ 오후 3:30으로 변경됩니다**

**빵과 포도주 봉헌**

- 4/28 나채국, 김민주    • 5/5 우영인, 우선자    • 5/12 백헬렌, 박애순
- 5/19 이기순, 성낙순    • 5/26 김중화, 김귀옥

**친교 봉사 일정**

- 5/19 노스브런스윅    • 6/16 노스에디슨+메타천    • 7/21 먼로

**2024 Bishop's Annual Appeal**

**<Stay with us, Lord : Renew our Hearts and Send Us on Mission>**

- 메타천 교구내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4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본당 목표 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됩니다
- 4/19 까지 약정된 금액은 \$29,850.00 (목표금액의 80.6%) 입니다.

**테네시농장 농산물 매운고추가루(30불)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주문은 4월 28일로 마감합니다.**

**4월 16일 안가연(Lucy), 고병준(Ivo) 주일 학교 학생이 견진을 받았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2회 Youth Group 주최 OLM 탁구 토너먼트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출전해주신 참가자분들, 도네이션 해주신분들,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자부	남자부
1등	고성희 아니시아	이광재 시몬
2등	염미라 세실리아	오현주 요한
3등	최현지 안토니아	고병준 요한

**썸머셋 모임(구역장: 조현실 테오도라)**

-일시/장소: 4월 28일 미사후 친교실

**전례분과 월례회의**

- 일시 : 4월 28일(주일) 미사후 친교실
- 문의 : 단제장(독서단, 제대회, 성가단, 복사단)

**오현주 요한 부제 서품미사, 리셉션 및 첫 감사미사 안내**

- 서품미사 장소: St. Francis of Assisi Metuchen
- 일시: 5월 3일, 금요일, 4 pm
- 리셉션 시간 및 장소: Sakura(1345 US-1, N Brunswick 08902)
- 5월 3일, 금요일, 6:30 pm

[ 참석하실 분들은 서경희 (피아, 732-668-5756) 혹은 채 데레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5일, 일요일, 11시30분 오요한 부제님 첫 한국어 감사미사와 이어지는 리셉션에 OLM 모든 신자들을 초대합니다.**

**성모의 날 행사**

- 일시 : 5/12(주님 승천 대축일) 미사중
- 화관 증정 / 꽃봉헌(단체, 개인) / 성모님께 편지봉헌

**National Eucharistic Revival(성체 기도문)은 각자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9,26-31**

그 무렵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뵈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그리고 그리스계 유대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없애 버리려고 버리고 있었다.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 이제 교회는 유대와 갈릴래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요한 3,18-24**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요한복음 15,1-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 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현주 요한 종신부제 서품식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시며 착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께서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에 파견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봉사하게 하셨나이다.
  - 당신의 거룩한 부름을 받고, 당신께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 준비하는 종신부제 수품자 오현주 요한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을 향한 그의 삶을 지켜주소서.
  - 주님께서서는 교회 안에 함께 계시니, 그가 신앙의 신비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복음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전파하게 하소서.
    - 주님을 본받아,
-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억압받는 이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하며, 하느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는 종신부제 수품자 오현주 요한을 지켜주시어,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백성들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함께 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사(부)제들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부활 삼중 기도**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 기도합니다.
-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